

## 만족과 감동을 주는 건강증진사업 전개

1998년도 한국건강관리협회 사업 방향



1997년 정축년(丁丑年)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된다.

좌절을 모를 것 같았던 대기업들의 부도, 그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 그리고 결국 국가 경제 마저 위기를 맞아 급기야는 IMF 구제 금융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될 정도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것을 누구 누구의 책임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한 때-소위 경제적 안정을 누렸다고 말할 수 있었을 때-인론에서 세계 경제에 관한 방송을 내보낼 때 들었던 말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다.

“IMF 구제금융의 지원을 받았던 멕시코나 필리핀을 닮지 말자.”

그런데 얼마 전 TV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IMF 구제금융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경제를 살린 멕시코 등을 본받자.”

모두가 지나쳐갔던 말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닮지 말자던 말을 미리미리 기억하고 실천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하듯이, 경제 역시 우리 스스로 검소하고 계획적인 생활로-가정이든 지역사회든 국가든-잘 지켜나가야만 했던 것이다.

또한 지난 해에는 많은 기대 속에서 새 대통령을 선출했다. 이 경제를 바로 잡아 한강의 기적을 재현하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여 그렇게도 바라는 선진국대열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모두의 시선은 새 대통령에게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병든 경제가 모두의 책임이듯이, 새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

야 할 것 같다.

이처럼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봉사해 온 33년간의 저력을 바탕으로 지난 해에도 각종 사업에서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우선 건강관리 187만여명, 기생충관리 19만 6천여명('97. 11월말 현재)의 실적을 거양하여 목표한 바를 무난히 달성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해에는 제6차 전국 장내 기생충 감염률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기존의 건강증진사업 수행과 더불어 진행하여야 하고 또한 짧은 기간 내에 실시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협회 임직원의 합심 협력, 정부와 관련 학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지난 해에는 또 한중 공동 기생충관리 사업을 비롯해 선진 보건의로 기술 습득을 위한 국제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대내외적 학술활동 또한 많은 결실을 이루었다. 특히 협회 직원들의 자질 향상과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자체 학술 조사연구에서도 우수한 연구결과가 적지 않게 나와 협회의 공신력 향상과 협회 내실을 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외에도 보건교육사업의 일환으로서, KBS와 중앙일보사가 공동 주최한 전국 지원 봉사대축제에 참가하여 봉사상을 수상하였으며, 전국 초등학교생 금연글짓기, 대 국민 건강관리 공개강좌, 금연만화·건강소식 등을 비롯한 다양한 보건교육 자료 개발 및 배포에도 좋은 성과

를 거두었다. 또 KBS1라디오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주최한 장기기증 캠페인 '다시 사는 세상, 함께 나누는 생명'에 참가, 신장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전국 2만 7천여 고교생 대상 무료 소변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전국 건강증진사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일선 건강증진사업 담당자와 한국건강관리협회 간의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한 좋은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 해의 이와 같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바탕으로 1998년에도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국민 건강증진 서비스 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217만여명에 대한 건강검사와 13만 8천여명에 대한 기생충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새해에는, 지난 해부터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며, 어린이·학생·청장년·노인 등 계층별 건강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 의료보험조합원·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집단 검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환원사업에도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다.

새해에는 또, 흔히 생각하는 건강검진 외에, 보다 본질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력에 맞는 건강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체력 측정시스템을 확대·정착할 계획이다. 즉, 체지방 분석 및 운동부하 검사를 통해 개개인의 체력과 건강상태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영양 평가와 상담을 해줌으로써 건강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건강생활실천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민 보건 의식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사업으로서, 언론매체를 통한 건강정보 제공과 건강관리 공개강좌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새해에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이동 보건교육사업을 위한 2억원과 영양개선 검사를 위한 5억 4천여만원을 이용한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계획과 추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외에도 정확한 검사 수행에도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하여 올해도 전 지부가 정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선진 보건의료 정보습득과 교환, 국내 건강관리 경험의 전수 등을 위한 국제 교류사업과 학술연구사업 실시에도 주력할 것이며, 협회 건강검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체 학술조사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물론 새해에는 정치·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한국건강관리협회도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협회도 새해에는 IMF 시대에 요구되는 비대해진 조직의 정비, 사업계획 및 예산 재편성을 통해 국권 회복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건강증진'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국민들이 어려운 여건일수록 건강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추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정치·경제적 난관을 함께 극복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건강만큼 확실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할 자산은 없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질병이 잠깐 쉬었다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질병의 발병을 예방하고 건강생활 실천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적 위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혁·변화·창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해에도 건강증진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7]